

# 돌아온 '빅초이' "KIA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 최희섭, 내일 데뷔전

### 현대전 투입...1루수·대타자 여부 미정 오늘 입단식...광주일고서 개인훈련 계획



‘빅초이’ 최희섭(28·KIA)이 드디어 한국무대 데뷔 날짜를 잡았다. 15일 수원 현대전이다. 서정환 KIA 감독은 13일 광주 구장에서 최희섭의 프리배팅을 지켜본 뒤 “미국에서 훈련을 많이 해 온 듯하다. 타구가 쪽쪽 뿜어나가는 게 믿음직스럽다. 하루 더 훈련 시킨 뒤 15일부터 실전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서 감독은 다만 “선발로 내보낼 지, 대타로 쓸지는 13일 훈련까지 지켜본 뒤 결정할 생각”이라며 “일단 어느 포지션이 됐든 15일에는 그라운드에서 최희섭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전 투입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 감독은 또 선발로 쓸 경우 포지션은 1루수라고 못박았다. 서 감독은 “최희섭에게 1루수를 맡기고 장성호는 좌익수로 내보낼 계획”이라며 “지난 주부터 (장)성호에게 외야수비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좀 힘들다고는 하지만 워낙 낙천적인 성격인 탓에 불만없이 성실히 외야수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희섭도 그라운드에 다시 서는 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지난 11일에 귀국, 여독도

풀리지 않은 상태지만 표정에서 전혀 피곤함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의욕적이다.

최희섭은 지난 12일 광주구장을 찾아 선수단과의 상견례 뒤부터 곧바로 훈련을 시작할 정도로 열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희섭은 이날 러닝으로 몸을 가볍게 풀 뒤 실내연습장에서 30여분간 타격폼을 가다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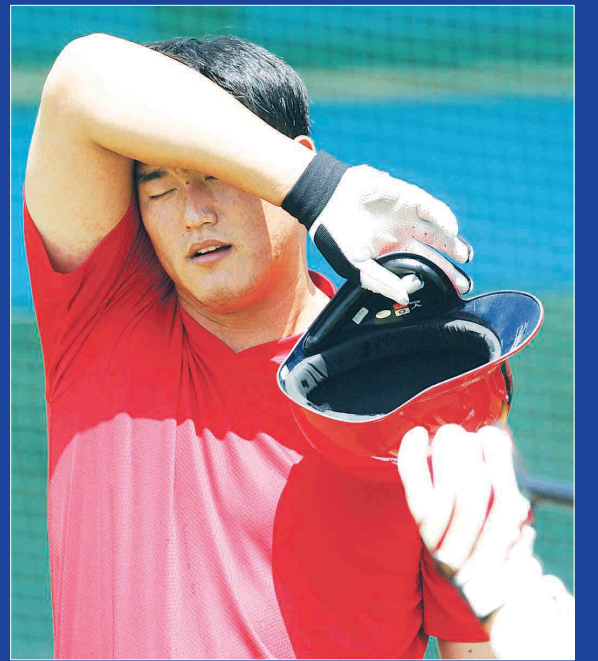
13일에는 오전 10시30분부터 타배팅 10분, 프리배팅 30분, 수비훈련 30분 등 1시간30분정도의 훈련을 거론해 소화해 냈다.

특히 프리배팅 150개 중 6개가 우측 답장을 훌쩍 넘어갈 정도로 특유의 시원한 장타력도 선보였다.

이건열 KIA 타격코치는 “예상했던 것 보단 훨씬 좋다. 타구에 힘이 있고, 팔뚝처럼 직선타로 날아간다. 땅볼타도 워낙 힘이 실려 있어 땅에 꽂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위력적”이라고 첫 평가를 내렸다.

이 코치는 “다만 훈련 첫날인 만큼 안정감은 다소 부족하다. 타격폼을 약간만 보완한다면 팀 전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최희섭도 “오랫만에 마음껏 훈련을 하니 너무 상쾌하다”며 “최근 부진한 팀을 위해서라도 빠르면일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최희섭이 프리배팅 훈련후 힘겨운듯 땀을 닦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편 최희섭은 이번 23번을 달았다. 당초 KIA는 배번을 알아서 하라는 최희섭의 말에 따라 44번으로 준비했으나, 최희섭이 “44번은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해 투수 문현정의 양보로 23번을 달게 됐다.

최희섭은 14일 오전 11시 KIA구단 사무실에서 입단식을 가진 뒤 모교인 광주제일고에서 개인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지은희 2주 연속 '정상 입맞춤'

### 함평다이내스티CC서 열린 KB스타투어 2차대회 우승

지은희(21·캘러웨이·사진)가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지은희는 12일 4계절 양진디 골프장 함평다이내스티 CC(파72·6천276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KB국민은행 스타투어 2차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박희영(20·이수건설)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 주 휘닉스파크클래스에서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맛봤던 지은희는 2주 연속 우승의 기쁨과 함께 우승 상금 3천600만 원을 거머쥐었다.

올 시즌 첫 2승 선수로 등극했고 상금 순위에서도 9천 587만 원으로 1위에 올랐다. 전날까지 단독 선두를 달렸던 지은희는 이날 마지막 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더블 보기 1개로 3타를 줄여 9언더파 207타로 3라운드를 마쳤다.

2라운드까지 지은희에 1타 뒤진 2위였던 박희영 역시 버디 5개, 보기 1개로 4타를 줄여 9언더파로 연장에 돌입했다. 18번 홀(파4)에서 치러진 연장 승부에서 두 선수 모두 파를 기록, 2차 연장까지 갔으나 파로 막은 지은희가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이날 우승 기회를 먼저 잡았던 쪽은 박희영이었다. 지은희와 공동 선두를 달리던 박희영은 17번 홀(파4) 두 번째 샷을 홀 바로 앞에 붙여 버디 기회를 잡은 것.

반대로 지은희는 홀과 10m가 넘는 지점에 공을 떨어뜨려 박희영이 1타 차로 앞서나갈 수 있는 기회였다. 박희영은 예상대로 버디를 잡았지만 지은희 역시 보란 듯이 약 13m의 버디 퍼팅을 집어넣으며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었다.

국내 여자골프의 '지존'신지애(19·하이마트)는 이날 6타를 줄여 첫날에 이어 또 한 번 코스 레코드와 타이틀을 이루며 선전했지만 2라운드의 실수를 만회하지 못하고 8언더파 208타로 3위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신지애는 지난해 9월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열린 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대회에서도 공동3위에 머무르



는 등 국민은행 스타투어대회와 인연이 없는 징크스를 깨뜨리지 못해 고향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한편 이날 박희영은 실질적으로는 4언더파가 아니라 6언더파를 쳤다. 따라서 연장까지 갈 일도 없이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

박희영은 1번 홀(파5)에서 4타 만에 공을 홀에 집어넣었지만 규정 클럽 수인 14개보다 1개 더 많은 15개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2벌타를 받아 버디가 보기로 돌변, 2타를 잃어버렸다.

상황은 1번홀에서 지은희와 박희영이 웨지를 티 그라운드에 둔채 자리를 옮겼고 이를 발견한 경기위원이 웨지를 박희영에게 전달했고, 박희영은 자신의 캐디에게 줬다. 박희영 캐디는 무심히 웨지를 박희영 백에 집어넣었고, 1번 홀 세 번째 샷을 할 때 웨지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지은희 측의 지적에 따라 박희영의 백을 살펴본 결과 규정 클럽 수를 초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KIA 윤석민 "징하네"

### SK상대 2실점 완투 불구 팀타선 침묵으로 또 패배



“형들 저만 나오면 왜 그래요!”

지난 시즌 마무리로 활약했던 윤석민(21·KIA)은 올 시즌 개막전 선발투수로 다시 태어났다. ‘토종 에이스’ 김진우의 빈자리를 대신한 것. 1선발 낙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한달여가 지난 현재 윤석민은 150km를 오르내리는 강속구와 ‘송곳’ 제구력으로 제 역할을 200% 이상 해내고 있다. 평균 자책점도 2.35에 불과하다.

지난달 22일 두산전에서 생애 첫 완봉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그가 올 시즌 거둔 유일한 승리다. 오히려 삼성 원수와 함께 최다패(1승6패) 투수로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기록상론 이해가 도저히 안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 진다.

윤석민은 지난달 6일 LG와의 개막전에서 6.1이닝 1실점(비자책)하고도 패전투수가 되더니 같은달 17일 SK전에서는 7이닝 동안 단 1안타만을 내주고도 수비실책으로 한점을 내줘 한국프로야구 사상 첫 ‘피안타 비자책패’(0-1)라는 웃지 못할 진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윤석민이 등판한 8경기에서 KIA타선은 모두 11점을 뽑아내 경기당 평균 득점이 1.4점에 그쳤다. 영병패로 패한 경우도 절반인 4차례나 된다.

반면 실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32경기를 치르는 동안 8개 구단 가운데 가장 적은 21개의 실책을 기록중인 KIA 야수들은 윤석민이 등판한 8경기에서는 7개의 실책을 기록했다.

윤석민만 나오면 실책은 많고 타선은 침묵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민은 13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SK와의 경기에서도 선발 등판 9이닝 동안 5피안타, 1볼넷, 2탈삼진으로 완투했으나, 5회말 상대 정경배에게 투런포를 얻어맞고 패전투수가 됐다. KIA타선은 상대 신인 김광현의 위력구에 놀려 4안타의 빈타에 허덕이며 단 1점도 뽑아내지 못하고 0-2로 패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3일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최희섭이 프리배팅 훈련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